

수리중인 선박의 고무 펜더에서 떨어짐

< 재 해 개 요 >

부산 수리조선소 내 상가되어 수리중인 예인선에서, 출장수리업체 소속의 재해자가 선수 외판 용접부의 물기를 건조시키기 위해 산소절단기를 들고 외부에 부착된 고무펜더(Fender : 충격흡수장치)로 내려가다가 펜더에 발을 딛는 순간 중심을 잃으면서 약 5.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
□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

- 떨어짐 / 사망 1명

□ 재해발생원인

-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음
-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

사업주는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음

-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,

사업주는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음



【재해상황도】

□ 재해예방대책

- 비계(죽장)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
-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, 안전대를 지급하여 고리 체결 후 작업하도록 관리해야함(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)
-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,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함

본 속보는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조선업재해예방센터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종 시설의 자체점검 및 적절한 조치실시, 근로자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 바랍니다.

인터넷 주소 www.kosha.or.kr/자료마당/재해사례/국내재해사례/조선업 클릭